

# 고금리에 은행 연체율 '4년來 최고'... 금융권 부실 우려

4대 은행 대출 연체율 0.29%  
국민 0.05%p, 신한 0.01%p ↑  
신용대출 줄이자 연체율 급등  
총당금 적립속도 보다 더 빨라



▲2023년 0.25% ▲2024년 0.29%로 올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4년 만에 최고치다. 고금리에 경기침체까지 더해지면서 회수하지 못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의 요구에 은행들은 총당금을 늘려가고 있지만 총당금 적립 속도보다 연체 채권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 금융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단순 평균 0.29%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4대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조치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8년 0.26% ▲2019년 0.25% ▲2020년 0.21% ▲2021년 0.19% ▲2022년 0.19%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은 2019년 0.24%에서 2024년 0.29%로 0.05%p 상승했고, 신한은행이 같은 기간 0.26%에서 0.27%로 0.01%p 올랐다. 하나은행은 0.19%에서 0.3%로 0.11%p 상승하고, 우리은행은 2019년과 2024년 모두 0.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체율이 높아진 이유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제한한 상태에서 경기 불확실성이 더해진 영향이 컸다.

앞서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강화에 따라 대출상품의 금리를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줄였다.

특히 가계대출 개인 신용대출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4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년 전과 비교해 40조 9382억원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은 3조 6719억원 감소했다.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용대출의 공급이 제한되면서 연체율이 올라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0.41%로 1년 전(0.39%)과 비교해 0.02%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은 같은기간 0.25%→0.27%로 0.02%p, 신용대출은 0.76%→0.82%로 0.06%p 올랐다.

아울러 기업대출 연체율도 상승했다.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0.6%로 1년 전(0.52%)과 비교해 0.08%p 상승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줄이면서 수익 확보가 어려워지자 개인사업자·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늘렸다.

가계에서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내수 회복이 더뎠고, 여기에 경기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기

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손충당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계나 기업에 대출을 해줬을 때 입을 수 있는 손실을 평가한 금액이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미리 쌓아둔다는 의미다.

4대 은행의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평균은 2023년 12월 246.35%에서 지난해 9월 205.43%로 40%포인트 낮아졌다.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역대급으로 쌓았음에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되려 하락하는 이유는 그만큼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속도가 총당금 적립 속도보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환율과 경기 악화 등이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그렇게 되면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차주들의 전반적인 연체율이 오르고 있어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롯데카드 빠니보틀과 손잡고 에디션 카드 4종 선배

롯데카드가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틀'과 협업을 통해 출시한 상품의 신규 디자인을 공개했다.

롯데카드는 '트립 투(Trip to) 로카 빠니보틀 에디션' 카드 4종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 2023년 처음으로 출시했다. 전월 실적 30만원을 달성하면 해외 가맹점 2%, 국내 가맹점 1% 할인을 한도 없이 적용한다. 이번에 출시한 디자인은 ▲동남아보틀 ▲미국보틀 ▲중동보틀 등 새로운 컨셉트로 구성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 결제 건에 할인율을 추가 적용한다. 아멕스 브랜드카드 이용 시 한도 없는 4%, 마스터 브랜드카드 이용 시 한도 없는 3% 할인을 마련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해외에서 더 큰 할인 혜택, 합리적인 연회비, 인기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틀과 협업으로 제작한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 등이 카드의 차별 요소다"라고 말했다.

## 신한카드 프리미엄카드 2종 더 베스트 엑스 출시

신한카드는 10일 '더 베스트 엑스(The BEST-X)'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6년 만에 출시한 프리미엄카드다. '마이신한포인트형'과 '스카이패스형' 중 2가지로 구성했다. 마이신한포인트형은 국내외 이용금액의 1%를 적립한다.

전월 300만원 이상 이용 시 0.5%를 추가로 쌓을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29만7000원이다. 해외 겸용(마스터) 30만원이다.

스카이패스형은 국내외 이용금액 15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전월 300만원 이상 이용 시 3000원당 추가 1마일리지를 월 최대 5000마일리지까지 적립해준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31만7000원, 해외겸용(마스터) 32만원이다.

연간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7만원의 캐시백도 지급한다. 연간 누적 3000만원 이용 시 7만원, 누적 6000만원 이용 시 10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백화점상품권 ▲호텔외식이용권 ▲항공 및 여행 이용권 등 리워드도 마련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건설경기 침체, 성장률 끌어내렸다... 올해도 '먹구름'

투자 감소... 성장률 0.4%p 낮춰  
건산연 "정부, 선제적 대응 필요"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까지 끌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도 건설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당초 상저하고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됐던 것과 달리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하반기에도 내수 부진은 물론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는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해 양호했지만 2분기에 0.5% 감소한 이후 3분기, 4분기 각각 5.7%, 5.5%감소했다. 분기별로 건설투자의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

는 각각 0.2%포인트(p), -0.1%p, -0.9%p, -0.8%p다. 이에 따라 연간으로 건설투자는 2024년 GDP성장률을 0.4%p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건산연은 "작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되어 4분기에는 1.2%에 그치며 연간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며 "지난해 대부분의 경제기관들이 전망한 수치를 하회한 것은 예상보다 건설 투자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종별로 보면 주거용 건축과 비주거용 건축 등 건축투자가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줄었고, 4분기까지 침체가 이어졌다. 그간 양호했던 토목 투자 역시 4분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관련 지표로 보면 건설 경기 침체는 예상보다 속도가 빨랐다.

지난해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641건으로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 취업자수는 201만1000명으로 작년 5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해 3년 7개월래 최저치로 내려갔다.

건산연은 "건설경기가 평균적으로 불황기 진입 후 저점을 형성하는데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걸린다"며 "특히 2023년에 침체한 건축착공면적은 2009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2008~2009년 건축착공이 위축된 이후 2010~2012년까지 3년 연속 건설투자가 위축됐으며, 2024년에 시작된 침체는 올해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국내 기관들은 올해 건설투자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경제성장이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KDI와 한국은행은 각각 올해

2.0%, 1.9% 성장으로 예측했다. 두 기관 모두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산연은 "건축착공의 증감률을 활용해 건축투자의 저점을 예상한 결과, 올해 3분기 전후를 기점으로 경기 저점을 형성할 것"이라면서도 "고환율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고, 트럼프 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연기될 경우 전반적인 건축공사 회복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침체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건산연은 또 "정부는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과 하반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2033년까지 부·울·경 기업에 2조 이상 투입

김병환 금융위원장 지역기업간담회 동남권 중견기업·예비중견사 대상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 추진

정부가 오는 2033년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2조원 이상, 매년 25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부·울·경 지역에 위치한 철강 석유화학 등의 산업을 디지털·녹색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발표 및 지역기업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올해부터 오는 2033년까지 9년간 동남권(부·울·경)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은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을 통해 매년 500억원씩 총 2500억원을 출자해 매년 5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는 매년 은행이 출자하는 500억원을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로 출자하고, 운용사는 민간자금 2000억원 이

상을 매칭해 매년 25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는 지자체(부산)가 사상 최초로 은행 출자분에 대해 후순위를 보장한다. 부산시가 은행출자금의 일정 수준 이상을 후순위로 보장하면 은행들은 위험기중치를 대출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는 지역에 대한 지원확대의 지분투자 중심의 자금공급 확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부산시의 후순위 출자로 은행들은 유망한 기업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부산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기념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중심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투자방식으로 참여하고 대출수준의 위험기중치만 적용받게 됐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